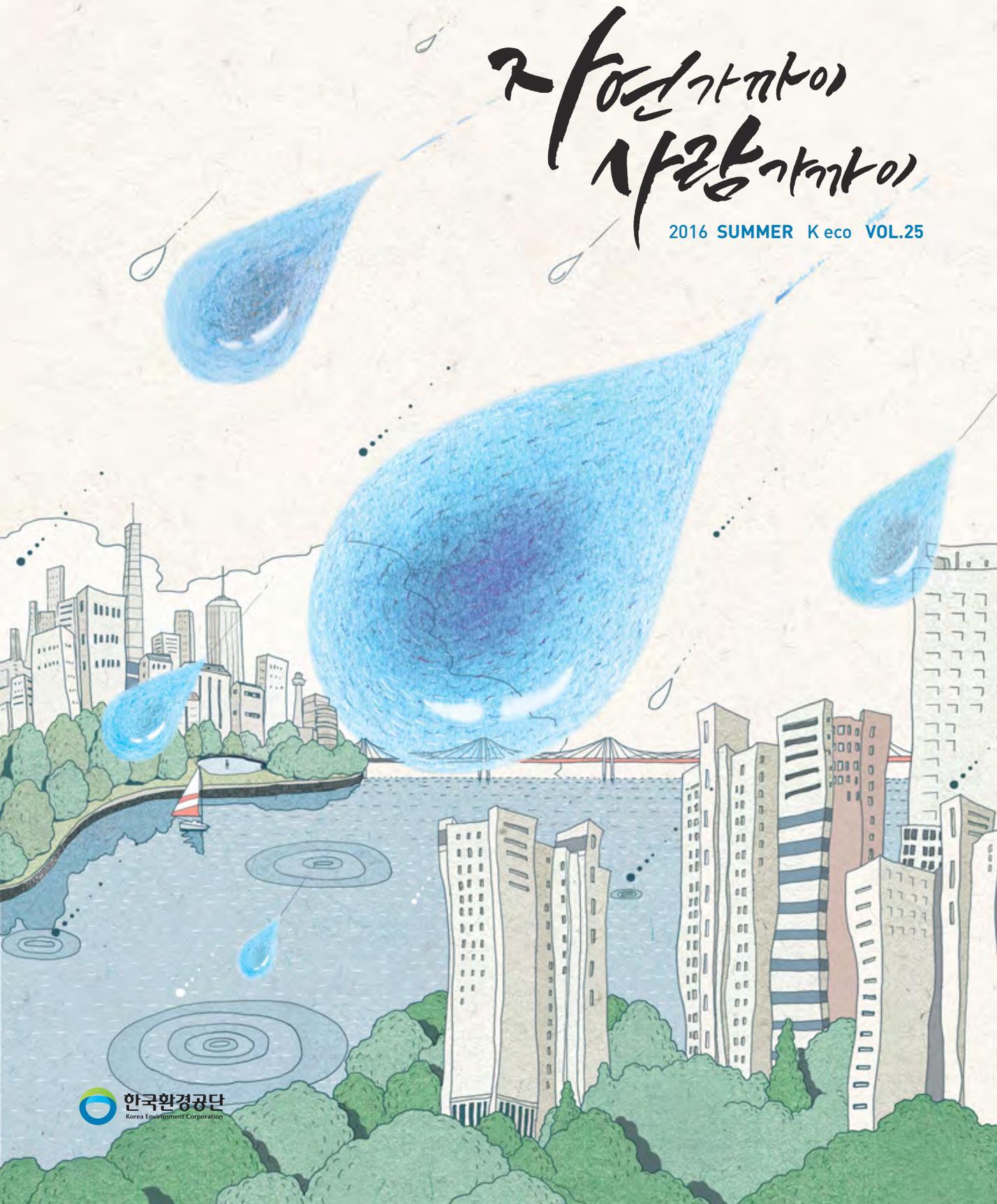


그동안 가까이 사랑했 가까이

2016 SUMMER K eco VOL.25





자라나는 생명의 계절 아름다운 초록의 세상

내리쬐는 햇빛에 생명들이 자라며

여름의 문이 열린다

초록의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있으면

다시 오지 않을 아름다운 계절이

눈 앞으로 스쳐 지나간다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시기, 충분한 추진력을 쌓아 전진할 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가족 여러분!
모든 생명이 가장 아름답게
푸르름을 자랑하는 계절의 중간인 여름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정부평가 추진성과에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행정자치부 정부 3.0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 쓴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6월 5일은 국제 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벌써 2016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계획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은 나머지 절반을 더욱 힘차게 달리기 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잠간의 휴식을 통해 새롭게 약진하기 위한 추진력을 쌓아
남은 시간도 지금까지처럼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단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아 시 진

CONTENTS



Special Theme **그린으로 가는 길**

- 06 **프롤로그**
- 08 **Theme Focus**
상습적인 침수가 도시를 좀먹는다
- 12 **Theme Report**
물에 잠긴 도시 안전을 생각하다
- 14 **Theme Interview**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시설처
시설설계팀 차장 고태기

Section 1. **바르게 가기**

- 18 **지구사랑수첩**
아랍에미리트와 케냐에서
떠올린 한국 '물'의 가치
- 22 **나는야, 지구환경지킴이**
변기 물부터 아깝시다
- 24 **내가 Green 세상**
우포늪지킴이 이인식
- 28 **푸루와 그루의 환경이야기**

발행처 한국환경공단 홍보팀 www.keco.or.kr

발행인 이시진 발행일 2016년 6월 10일 통권25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032-590-3015 기획·디자인·제작 (주) 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Section 2. 함께 가기

- 30 열정 UP! 행복 UP!
에코뮤직스 VS 마라톤회
- 34 바라보기
같은 이름 천태만상
- 36 가자! 세계로!
Home is not far away when you are alive
- 38 사랑의 메신저
칭찬릴레이
- 40 직장인 인문학
- 42 함께 하는 세상
대구경북지역본부 찾아가는 환경체험교실

Section 3. 웃으며 가기

- 46 건강한 삶
여름 휴가지 건강생활 도우미
- 48 에코스페이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사랑홍보교육관
- 52 즐거운 삶
이번 여름엔 자연까지 챙겨 보자!
- 54 K eco 뉴스
- 58 독자 참여
- 59 행복 나눔

한눈에 보는 도시 침수

1 도시 침수의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



노후화된 하수관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하수도 축소 및 왜곡 발생



저지대 반지하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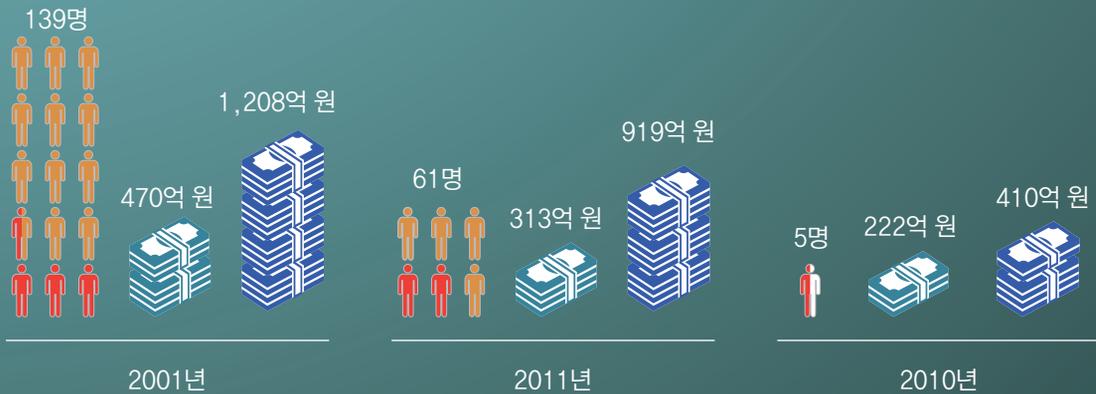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시설처 시설설계팀 고태기 차장 인터뷰 중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도를 정비하여 큰 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용량을 늘리고 저지대나 해안가에 빗물 펌프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장마철 풍수해가 가장 컸던 해의 규모와 복구 비용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00~2012)



3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도시 침수 세이프 프로젝트는?



저지대 반지하가옥 정비 · 빗물 펌프장 정비
 하수관로 정비 · 일반형 하수저류시설 설치 ·
 교차로 하부 하수저류시설 이용

상습적인 침수가 도시를 쪼먹는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도시화로 인해 땅이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뒤덮이면서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 들었고 하천과 하수도 같은 배수시설은 처리용량이 부족해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역 침수 같은 물난리를 크게 겪은 경우도 있다.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도시 침수의 원인과 현황은 무엇인지 알아 본다.



기후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가 낳은 부작용

도시 침수의 원인 중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기후 변화이다. 강우량 및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계절적·지역적 편차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한 것도 도시 침수의 원인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50mm 이상 강우횟수는 60년대 11회에서 2000년대 11회로 약 10배 증가했다. 국민안전처의 2016년 발표 결과에서도 도시 침수의 원인이 드러난다. 서울의 불투수 면적(토양을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어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지역. 일반적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증가한다)이 1962년 7.8%에서 2012년 54.4%로 7배 늘어났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녹지나 흙이 있던

자리를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메워 버린 것이다.

한 번에 집중해서 쏟아지는 비는 잦아지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줄어들었다. 또한 저지대에 인구 및 자산이 증가하고 도시의 하천과 하수구 등 배수 시설은 인구의 증가만큼 늘릴 수가 없다. 특히 하수관로 기능을 약화시키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하수도의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흐르는 공간(하수도 통수단 면적)이 축소되고 흐름 불량 등 왜곡이 발생하여 기존의 배수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실제로 하수관로 내부 조사 결과 18m당 1개소 불량이 발생하기도 했다.(전국 15개 조사지역 평균) 이밖에 도시 침수의 주 범람원인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¹⁾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등 배수 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다. 여기에 하천은

1) 우수저류시설: 빗물을 일정한 기간만 저장하는 시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침수 예방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달라진 장맛비 양상

2000년 이후 매년 내리던 장맛비의 양상이 달라졌다. 서울연구원이 2000년 이후 12년간의 장마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마 기간은 줄고 비는 더 많이 내렸다.

서울의 장마 기간은 지난 40년(1973~2012) 동안 6월 20일부터 7월 20일경까지 평균 31일간 지속됐다. 장마 기간 중 강수일수와 강수량은 각각 18일, 419mm로 일 년 전체 강수량의 30%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2012년 장마 기간은 19일로 평균보다 짧았으나 강수량은 423mm로 전체 장마 기간의 평균 강수량과 비슷했다. 즉,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비가 왔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 장마 기간의 연평균 강수량은 507mm였다. 1990년대 평균 398mm, 1980년대 평균 385mm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 2000년 이후 장마철 풍수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01년, 2011년, 2010년순이었다. 3개 연도 피해 규모는 사상자 205명, 시설 피해 1천억 원, 복구 비용 2천 5백억 원으로 주로 일 강수량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날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00년 이후 피해 규모의 각각 95.4%, 85.2%를 차지한다. 피해 복구 비용 역시 총 시설 피해액의 2.5배 수준이다.

최근에는 반지하 주택 등의 건물 침수피해가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시설물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장마철 건물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2001년 17%였던 건물 침수 피해는 2010년 48%로 3배 가량 늘어났는데, 이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시설물 피해에 비해 피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최악의 재난, 우면산 산사태

2011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산에 폭우가 쏟아졌다. 7월 27일 하루 동안 301.5mm, 7월 26~28일까지 587.5mm의 기록적인 폭우는 연평균 강우량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우면산에 산사태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쏟아져 내린 토사는 근처의 민가를 덮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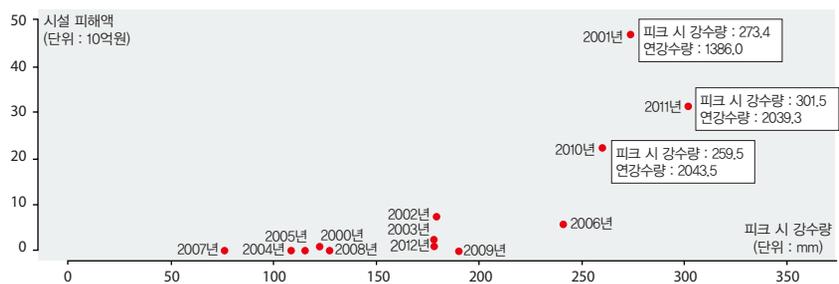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형촌마을의 30가구가 고립되고 방배동 전원마을도 20가구 가량이 토사에 묻혔다. EBS 우면동 방송센터도 라디오 정규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면산 터널과 요금소 사이의 도로 50m가 흩으로 뒤덮였고, 토사를 치우기 위해 차량 진입을 통제해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400여 명이 대피했다. 정전과 단수 피해도 잇따라 강남과 우면산 인근 아파트 2천 가구가 정전되었고 2만 5천여 가구에는 물이



피해 규모와 피크 시 강수량



자료 : 기상청(2000-2012),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00-2012)



나오지 않았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도로 261곳과 철로 18곳이 유실되었고, 가축 12만 9천 870여 마리가 죽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도 컸다. 서울 서초구의 피해는 168억원으로 특별 재난 선포 기준인 95억 원을 초과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서울 심장부를 직격한 물폭탄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던 7월 27일 서울의 다른 지역 역시 물난리를 겪었다. 당시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이 물에 잠겼고 강서구 화곡동 및 양천구 신월동 일대와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 서초구 사당역 사거리 등 저지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2011년 7월 27일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은 ‘서울이 바다가 됐다…폭우피해 속출 · 교통대란’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6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평년 전체 장마 기간 동안 내리는 비의 절반 가량을 하루 만에 쏟아 부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며 물난리를 일으킨 것이다.

침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남역과 사당역의 경우 지형적인 요인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침수가 진행됐던 강남역 일대는 인근 논현동보다 17m가량 낮은 분지형이고, 사당역도 우면산과 관악산의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폭우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몰리는데, 주변에 위치한 반포천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상습 침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홍수 위험이 높은 창릉천(서울 은평 · 고양), 광주천(광주 동 · 서구), 대촌천(광주 남구 · 나주) 유역을 대상으로 종합 치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상습적인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만으로 홍수위험 해소가 어려운 10개소에 대한 신개념 치수대책을 2017년까지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공장, 공원을 중심으로 지하에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역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별, 침수 유형별 최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 보급하고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 검토와 연구 개발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물에 잠긴 도시, 안전을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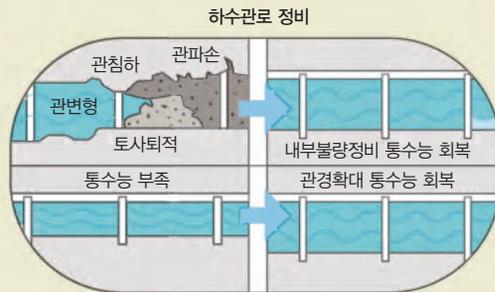
여름 장마철이 되면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로 인해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고, 강남역과 광화문이 잠기기도 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관련 기관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침수예방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간당 50mm 이상 강우횟수는 1960년대 11회에서 2000년대 111회로 급증했다. 일 최대 300mm 이상의 강우 발생횟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커지자 2011년 관련 부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재난 관리 개선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기후 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공단 역시 환경부의 업무 지원을 요청 받아 침수 대응을 위한 방법에 들어갔다.



넓어진 물길

문제를 해결하다

현재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하수도는 2011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 강우량과 강우 발생횟수를 근거로 설계되었기에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수도의 물길을 넓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로 공단을 중심으로 하수도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도시 침수 세이프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정비 사업은 하수도의 성능을 강화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자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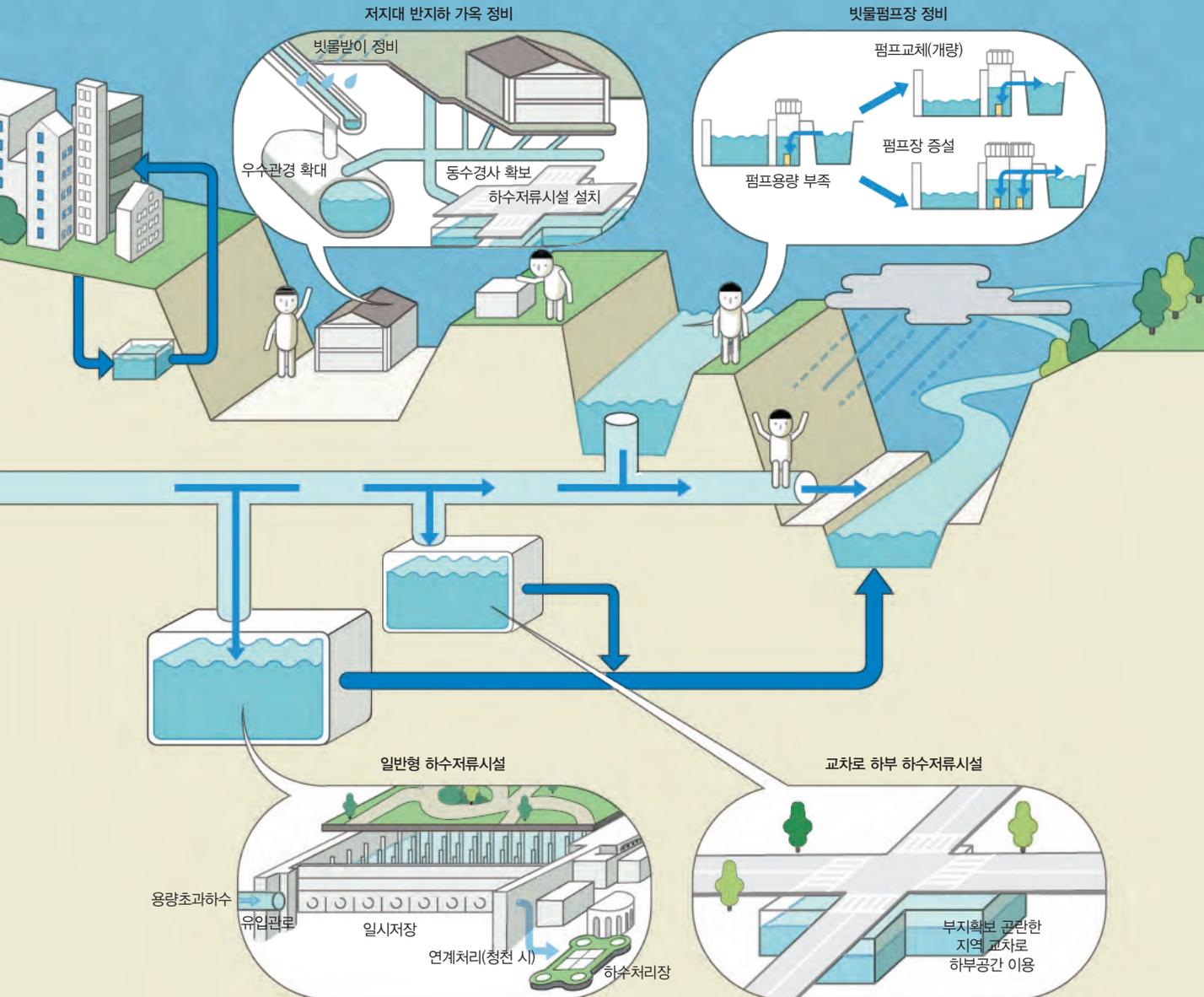
체계를
갖추다

최신 기법

효과적인
침수예방

공단은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예방 정비표준모델 및 최신 설계 기법을 도입·보급하게 된다. 여기에는 침수시물레이션기법, 저영향 개발기법(LID) 등과 같은 기술이 쓰였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최적의 정비 모델을 만들어 효과적인 침수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우 시 유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수관로를 비롯해 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하수처리장의 실시간 연계 운영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에 대응하고 일상적인 강우에는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둔다. 또한 도시 내에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 하수도의 침수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및 정책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상하수도시설처 시설설계팀 차장 고태기

풍수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꿈꾸다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환경시설지원본부에 있는 상하수도시설처는 상수도과 하수도의 설치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및 지원 등 상하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다. 이 곳의 시설설계팀 고태기 차장을 만나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정비중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도시 침수

2002년 경력사원으로 공단에 입사한 고태기 차장은 시설설치현장에서 공사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도시 침수 예방 시범사업 TF팀에 참여하면서 도시 침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도시 침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침수 요인이 증가한 것도 있고 통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고태기 차장의 말에 의하면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침수가 잦아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현재 도시 내 빗물을 하천까지 흘려 보내는 하수관로는 대부분 5~10년에 한 번 정도 내리는 비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는 많이 내리고 땅이 흡수하는 양은 적어지고 있어서 허용 한계가 초과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도시화에 따라 강우에 의한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침수가 되면 피해를 본 시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관로 용량을 큰 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빗물이 흘러가기 어려운 저지대나 해안가에 빗물 펌프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내린 비가 지표면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시 내 하수관로 내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고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비의 양을 측정하고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 침수 세이프 프로젝트

공단은 집중호우로부터 도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착수했다. 도시 침수 세이프(SAFE)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집중호우로부터 도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침수해소와 수질을 개선하며 관련 계획 기법을 수립하는 것으로 고태기 차장이 앞서 말한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진행한다.

“도시 침수 세이프 프로젝트에서 세이프라는 말의 의미는 하수도 성능을 강화하여(Sewer Performance Advancement), 기후변화에 적응하고(Acclimation to Climate Change), 도시 침수를 예방하여(Fighting against Urban Flooding), 공공복지를 향상한다(Engancement of Public Welfare)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부터 환경부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부터 확보했다. 공단에서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별 침수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여 근본적인 침수 예방 대책이 수립됐다. 이중배수체계에 의한 침수 시뮬레이션 기법¹⁾과 저영향 개발기법(LID)²⁾ 등과 같은 최신 기술이 도입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까지 마련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도시 침수 세이프 프로젝트는 공단만 오롯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공단을 포함해 다양한 관련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작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관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에 정기회의는 물론 세미나, 사업설명회,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었다. 특히 기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관련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태기 차장을 비롯한 공단의 담당자들은 해당 주민들에게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인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어 원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1) 하수 유입과 유출을 예측하는 수리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 지역 침수를 예방하는 것

2)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물순환 상태를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최대한 개발 이전에 가깝도록 유지하는 것





특히 과거 침수 현장을 조사하던 중 전남 보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침수 흔적을 보여 주기 위해 안방까지 안내해 준 일도 있었다. 좋은 일을 한다며 점심값도 받지 않으려고 했던 분인데, 이런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협조가 힘이 되어 주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 있던 일도 많았습니다.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정비표준모델 구축, 최선설계 기법 도입 같은 일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어요.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뿌듯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수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침수 예방 사업은 지자체와 우리 공단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시 침수 세이프 프로젝트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다. 일단 상습침수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다. 여기에 하수도시설 개량을 통해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 시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을 통해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월류 또는 방류되는 하수)와 비점오염 저감 등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 효과를 생각할 수 있고, 하류수역의 오염부하량 삭감과 처리시설 대체에 따른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표준모델 개발과 확대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침수대응 분야 전문가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 침수 세이프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습 강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공단에서는 설계 성과품에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의거하여 시설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고태기 차장은 도시화에 따른 강우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계속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아랍에미리트와 케냐에서 떠올린

한국 ‘물’의 가치





하늘에서 바라본 중동지역의 대표적인 부자국가 아랍에미리트(UAE)는 온통 화색의 모래 언덕뿐이었다. 간간히 건물로 추정되는 다른 색도 보였지만 푸른 혹은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숲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니,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신기루로 가득한 사막의 오아시스

하늘에서 바라보던 것과는 달리, 한 시간여 뒤 UAE 아부다비 공항에서 마주한 공항 밖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이곳이 사막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곳곳에 열대림과 관목, 수풀들이 즐비한 초록 풍경이 펼쳐졌다. UAE라는 것을 모르고 방문했다면 동남아시아 어느 한 곳의 휴양지와도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곳곳에 즐비한 도시공학적으로 세워진 건물과 멋들어진 조경미는 훌륭하기까지 했다.

놀란 나에게 가이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유를 말해 주었다. 원래 UAE의 국민들은 주로 사막에서 부족 단위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1960년대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그들의 생활상은 급속히 바뀌었다.

매장량만 5억 톤에 달하는 석유는 UAE에 큰 부를 선물했다. 잘 닦인 길과 쪽 뺨은 고속도로를 선물하고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은 마천루와 여러 개의 인공 섬도 함께 가져다 줬다. 국민들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만끽했다. 이런 UAE의 눈부신 발전에 외국인들도 앞다투어 이곳으로 찾아 들었다.

불과 40~50년 만에 '폭염'과 '작열하는 태양'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이미지에서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로 보일 정도로 발전된 모습의 현대판 오아시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UAE

UAE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천연 자원 '석유' 덕분이다. 석유의 발견은 그들의 삶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석유는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자원이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한정된 자원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UAE의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석유 하나만 온전히 의존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외국인들이 스스로 UAE에 들어와서 돈을 쓰도록 만든 것이다. 즉, '관광' 사업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UAE는 관광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 일찌감치 '물'의 가치에 주목하고 완벽한 '물'의 지배에 들어갔다. 산업이 크게 발전할수록 물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 촌락 단위로 부족 생활을 할 때에는 조그마한 오아시스로도 충분히 삶이 가능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해졌다. 물이 없는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UAE는 이 때문에 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일단 UAE 정부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서 염분이 가득한 페르시아만의 바닷물을 식물들이 섭취할 수 있는 '담수'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바뀌어진 담수는 검은 파이프를 타고 도시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



“

아랍에미리트와 케냐를 보며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곰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



도시가 가득 자리잡고 있는 식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담수가 마치 인간의 모세혈관처럼 UAE 곳곳에 있는 식물들을 살아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아름다운 UAE의 녹색 가득한 풍경에는 거대한 자본으로 만들어 낸 물이 있는 셈이다.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UAE의 물 정책은 모세혈관을 지배하는 뇌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이 석유보다 귀한 나라에서 매년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해 손에 넣은 물에 대한 통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케냐에서 다시 깨닫게 된 물의 중요성

UAE를 방문하고 하루 뒤, 비행기로 5시간을 날아서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도착했다. 케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나 노동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나라이다. 나라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커피와 동물만 연상되는 이곳에서 물이 지니는 가치는 관광을 위해 물을 개발한 UAE보다 몇 단계 상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이로비라는 이름은 원래 원주민인 마사이어로 '참 좋은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나이로비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좋은 물이 흐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 도착해서 바라본 나이로비의 모습은 참 좋은 샘물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나이로비의 강물은 짙은 갈색의 흙탕물이었고, 시내 곳곳에 흐르는 물이나 작은 웅덩이

어디에도 손이라도 담그고 싶을 정도로 맑은 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주재원에게 이유를 물어 보니 환경 개념이 전혀 없는 국민 의식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살기가 어렵고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은 케냐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때문에 어차피 공용으로 필요할 때면 쓸 수 있는 물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냐 국민들의 이런 생각들은 결국 화살이 되어 국민들에게 되돌아갔다. 현재 케냐에는 그 하찮게 여기던 1L의 물 가격이 한 끼 식사 금액과 맞먹는 4달러까지 치솟았다. 나이로비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에 마시는 것까지 문제가 하나 더해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에서 격정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나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1만 113km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서울을 생각해 보았다. UAE에 뒤지지 않은 국가 및 국민 경제력에 케냐의 참 좋은 샘물과도 충분히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물 자원을 모두 가진 나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 이 기사는 한국환경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기 물부터 아깝시다

‘펑펑’ 폭탄 소리가 아니다.

말마따나 우리가 ‘물’ 쓰듯 쓰고 있는 ‘물’ 애기다. 세면이나 목욕, 세탁, 설거지 등 생활 곳곳에서 우리는 물을 지나칠 정도로 당연하게 낭비하고 있다. 양치를 할 때 물을 틀어 놓은 채로 닦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어디서나 깨끗한 물이 나오다 보니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지낸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한국은 물이 풍부한 국가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유엔 국제인구행동 연구소(PAI) 평가에 따르면 200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은 1,488㎥다, 하지만 25년 후인 2025년이면 최저 1,199㎥까지 떨어진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000~1,700㎥ 사이면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다.

물이 부족하다는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봄, 강원도 지역의 가뭄과 가을철 충남 지역의 가뭄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서북부 지역 8곳에서 제한 급수를 시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런 상황은 우리 지역만 아니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 해당 지역의 제한 급수는 단순히 비가 안 왔기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어서이다. 취수원에서 생산은 했지만 가정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수도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노후되어 곳곳에서 누수가 진행되는 상수관로가 범인이다.

5년간 누수로 사라진 물만 32억 700만 톤

지난해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수로 사라진 물이 32억 700만 톤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저수용량의 8%에 해당하는 것으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가 저장할 수 있는 32억 톤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진 데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통계를 보면 전국 상수관로 18만 688km 중 31%인 5만 5,312km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상수관로다. 언제 터져서 물이 줄줄 새지 모르는 것들만 이 정도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교체 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일어날 대량의 물 낭비는 막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한다고 해서 물 부족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는 물을 잡더라도 근본적으로 가뭄은 늘어난다는 것이 학자들의 예상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변기 물부터 물 절약을 실천하자

지난 3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민 하루 물 사용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이 변기 물이다. 전체 물 사용량의 25%로 한 회에 쓰는 물 사용량만 12~15L에 달한다. 양변기 물이 먹어도 되는 수도물임을 감안할 때 먹기도 아까운 물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양변기로 낭비되는 물을 막기 위해 2014년 1월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는 1회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절수형 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아직 설치된 건물이 많지 않고 성능 문제로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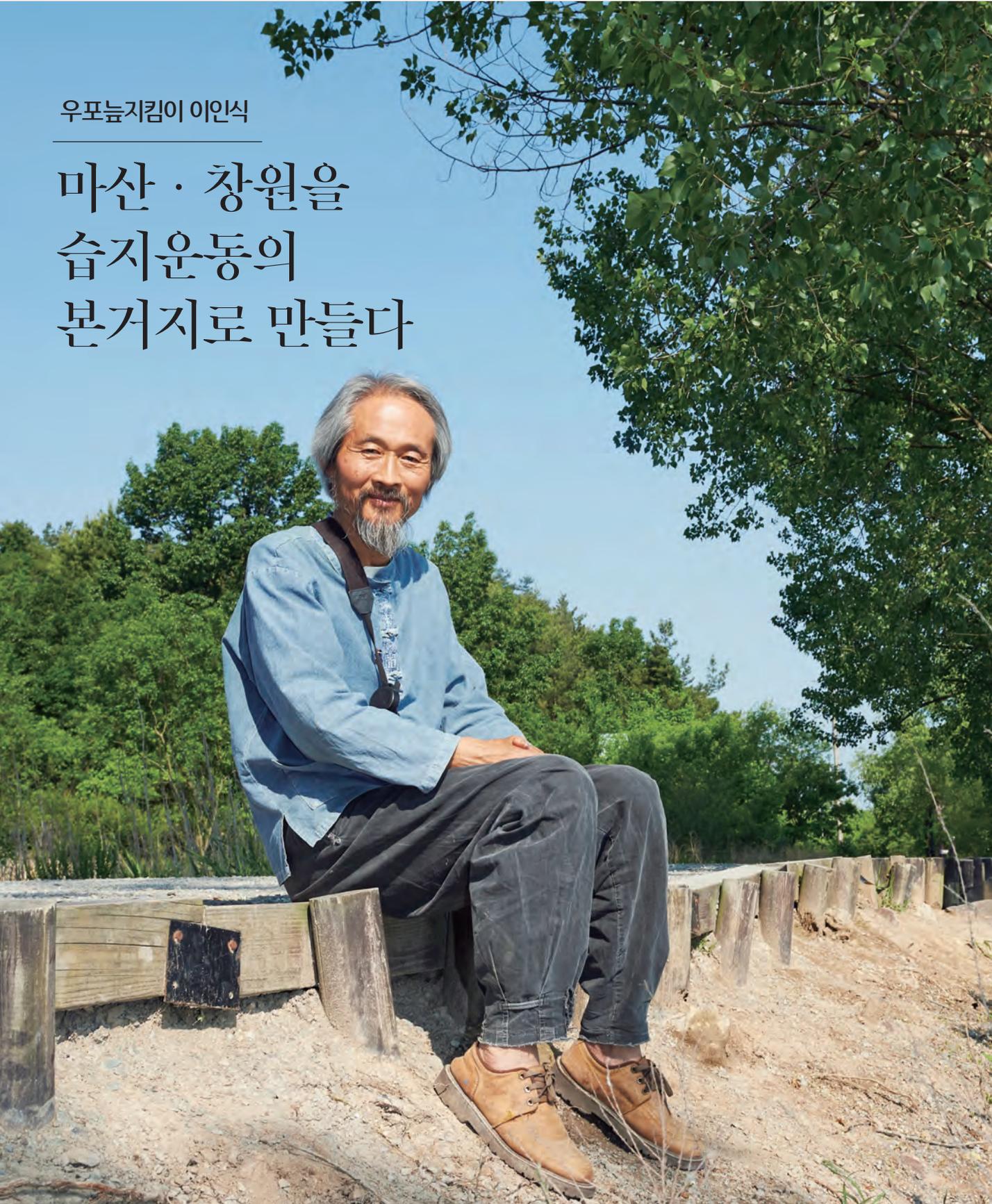
그렇다면 일반 양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1.5L 페트병을 양변기 물 저장소(탱크)에 넣어 두는 것이다. 그만큼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성능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만 절수형 변기로 바뀌어도 연간 3,340만 톤의 물을 아낄 수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여기에 나머지 95%의 가구가 1.5L만 더 아껴도 훨씬 더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우리부터 나서서 실천하면 될 일이다.

※ 이 기사는 한국환경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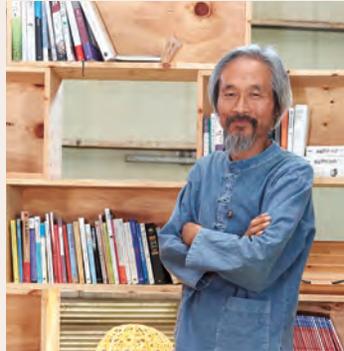
우포늪지킴이 이인식

마산 · 창원을 습지운동의 본거지로 만들다





우포늪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인식 환경운동가는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위해 애쓴 사람이다. 다양한 환경 보전 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15년 열렸던 환경의 날 20주년 기념식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교사에서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그의 파란만장했던 환경운동 일대기를 들여다 보았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으로 시작된 환경운동

1991년,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 원액 30톤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원액은 정수장에서 염소 소독 과정을 거치면서 클로로페놀로 변했다. 페놀은 염료나 수지를 만들 때 쓰는 특이한 냄새를 가진 물질로 염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클로로페놀은 페놀보다 악취가 더욱 심하고 암 유발과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화학 물질이다. 이후 대구 시내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1999년 환경 공무원과 환경운동가 100여명이 뽑은 '우리나라 환경 10대 사건' 1위에 올랐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이다.

당시 대구 수돗물에는 국내 음용수 기준치인 0.005ppm의 22배 이상이 되는 페놀이 검출됐으며 수돗물을 마셨던 시민의 44%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 오염된 물은 낙동강을 타고 더욱 흘러 들어가 경남, 창원, 마산, 부산까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시민운동을 주도한 마산가톨릭여성회관에서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 300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되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해도 마산시 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마산가톨릭여성회관 조현순 관장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여성 회원 3명이 마산시 임시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며칠 뒤, 총무국 직원들이 농성장의 벽보를 찢고 완력으로 농성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산시 공무원이 조 관장의 뺨을 때렸다. 당시 교육 민주화 운동 참여 후 해직 교사 신분이었던 이인식 환경운동가가 농성장을 찾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이 일은 환경운동과는 관련이 없었던 그를 환경운동의 세계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환경운동에 뛰어 들어 우포늪 보존을 시작하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계기로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이하 마창공추협)가 탄생했다. 이인식 환경운동가는 마창공추협에서 초대 사무국장을 맡으며 교사로 복직을 한 이후에도 환경운동을 이어 가게 된다. 페놀로 얼룩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그곳을 관찰하던 중, 그는 기업을 감시하는 것보다 늪과 같은 자연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관찰했던 늪은 모두 논, 밭, 인공 시설물로 막혀 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페놀 오염과 같은 사고에서 늪은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국가는 농경지, 공단 조성 등을 이유로 계속 늪을 없애려고만 했다. 우포늪은 그 지역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던 자연늪이었고 그는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자연늪을 지키는 시민 모임'을 만들었고,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도 창립했다. 우포늪에서 첫 연수회를 가진 이 모임으로 우포늪 보존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습지 보존 운동이 시작된 후, 우리나라는 람사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개발 논리에 밀려 람사협약 가입을 미뤄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세계에서 101번째 가입이라는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2008년에는 람사총회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 이인식 환경운동을 비롯한 많은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인 대암산용늪의 등록을 시작으로 1998년 우포늪, 2005년 신안장도습지, 2006년 순천만·보성갯벌, 제주물영아리오름 습지, 2007년 무제치늪, 두웅습지, 2008년 무안갯벌, 오대산국립공원 습지, 강화매화마름군락, 제주물장오리오름 습지, 2009년 서천갯벌, 2010년 고창·부안 갯벌, 2011년 제주 동백동산 습지, 고창 운곡습지, 증도갯벌, 2012년 한강 범섬, 2014년 송도갯벌, 2015년 숨은물뱅늪, 한반도 습지까지 총 19개가 람사습지에 등록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기까지

2010년 명예퇴직을 한 이인식 환경운동가는 우포늪 근처에 자리를 잡고 환경 운동을 이어갔다. 국내 최대이자 최고(最古)의 원시 자연늪으로 알려진 우포늪 보전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던 지역 주민들이 환경운동가 때문에 마을 발전의 기회를 잃어 버린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포늪을 보호하겠다는 이인식 환경운동가와 시멘트를 사용해 마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환경부 장관의 연락까지 받게 되고, 마을의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우포늪 때문에 마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과 의견 충돌 때문에 많은 반대와 시비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지역에 기반이 없이 다른 곳에 터전을 두고 오가며 진행되는 환경운동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우포늪을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오가며 관찰하고 있다. 몇 년을 그렇게 터를 잡고 살아가니 지역 주민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 주었다.





지역과 함께하는 우포자연도서관

퇴직금으로 창고를 사고, 그 돈으로 우포자연도서관을 만든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각 단체와 후원자가 힘을 모아 도서관 내부를 꾸렸는데, 아이들이 주 고객인 도서관의 특성상, 설계에서 어린아이들의 시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도서관 설계에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교수는 책장을 높이터 삼아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높게 쌓으려던 도서관의 책상을 아이들이 앉고, 편하게 기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낮게 바꾸기도 했다. 아이들이 자재를 주워 와서 직접 참여를 한 전시물도 있다.

도서관 바닥에는 들어오면서부터 고양이 발자국을 따라 돌아다녀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는가 하면, 신발을 벗고 나무를 느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재는 동네 아이들도 자주 찾아오는 놀이터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를 배척했던 동네 주민들도 이제 이곳을 찾아 프로젝트로 영상도 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우포늪을 찾았다가 우포자연도서관을 찾는 가족단위의 방문객들과, 방학 중에 체험학습을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포자연도서관을 만든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지만 재능기부로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 완성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예정이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우포자연도서관 역시 우포늪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이며, 그것은 자신만의 재산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후에는 우포자연도서관을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1년 동안 논농사도 진행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 더욱 신나는 생태 학습을 할 것도 생각하고 있다.

현재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로 인해 논과 밭으로 변해 버린 우포늪을 예전처럼 되돌리고, 그곳을 생태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 운동의 근본은 환경운동가만 행복한 것이 아닌 주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올 수 있는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계속 이곳에서 행복한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다.



에너지산업의 선두주자

친환경 에너지타운



유환석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즐겁다!

에코뮤직스 VS 마라톤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다. 그럴 때 나와 같은 취미를 갖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동호회 활동. 이번 호에는 공단 내 밴드부인 에코뮤직스와 마라톤회를 만나 보았다.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에코뮤직스의 시작은 2008년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기자랑에서 일회용으로 공연을 했던 멤버들은 생각보다 큰 호응을 받았다.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과 총무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9년 김종호 과장, 정계수 대리, 박종현 대리 등 원년 멤버들이 모여 창설할 수 있었다.

창설 당시 동호회명을 음악의 장르를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음악을 해 보자는 동호회의 신념을 담아 'Musics'라고 지었다.

3명으로 시작한 동호회 구성원은 현재 42명까지 늘어났다. 공단에 존재하는 35개 동호회 중 25번째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실력도 있는 회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내실이 탄탄한 알짜배기 동호회로 인정 받고 있기도 하다.

푸른 녹음을 타고 흐르는 음악의 향연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직장인들의 유일한 휴식시간인 점심시간에 공단 내의





정계수 · 에코뮤직스를 탄생시킨 장본인

음악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서 건전하게 음악을 즐기는 취미를 가지니 좋아하고요. 에코뮤직스의 최대 장점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진한 동료 사랑을 느끼면서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찾아 주세요.

현소희 · 매력적인 목소리의 보컬

학창 시절 밴드 활동을 했어요. 공단에 입사해서도 에코뮤직스가 있는 건 알고 있었고 관심도 많았는데 생각만 하다가 올해 초에 가입했습니다. 즐겁게 활동하다 보니 회사에 애정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김주한 · 에코뮤직스의 팔방미인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가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어서 기회가 없다가 2012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하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악기를 다룰 자신이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에서 음악 소리가 울렸다. 에코뮤직스의 회원들이 연습하는 소리이다. 다소 좁은 컨테이너 안에는 자신들의 악기를 연주하며 흥에 겨워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프로처럼 시원시원하게 노래를 하지는 못해도, 연주 기교가 아주 세련되지 않아도 음악을 즐기면서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점심시간이 되면 시간이 나는 회원들이 나와서 연습을 한다. 특별 공연이 있을 때는 주말에도 연습을 쉬지 않는다. 매년 창립기념일 축하공연, 봄맞이 길거리 공연, 가을맞이 길거리 공연, 정기 연주회 등에 꼬박꼬박 참여를 하는데, 지역본부와 부서의 요청에 따라 특별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실력 있는 회원들은 대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에코뮤직스의 김중호 과장은 서울지역 노동 가극 축제 한 마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대에 오르고 난 후 직장 동료와 선배에게 격려와 환호를 받게 되는 것은 덤이다. '공단 연예인' 같은 느낌이라 어디서든 한 곡 뽐으라는 요구도 많이 받는다고.

전적을 보면 실력이 출중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잘하든 못하든 각자 장점을 발휘하면 된다는 것이다. 악기를 못 다루면 음악을 잘 듣고 조연을 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에코뮤직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밴드라고 하면 락음악을 주로 할 것 같지만, 통기타로 버스킹도 하고, 메탈도 하고, 앞으로는 클래식도 선 보일 생각이다. 이 때문에 다른 음악을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에코뮤직스에 가입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 하는 음악을 추구하는 에코뮤직스. 앞으로도 음악으로 서로 치유하며 같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독한 마라톤러의 아름다운 도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손수 실천하는 동호회가 있으니 바로 본사의 마라톤회이다. 2001년 당시 10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마라톤회는 현재 5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마라톤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간단한 운동복과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기본적인 기술이나 체력이 부족해도 수준에 맞추어 할 수

있는 생활 운동이다.

현재 마라톤회는 일 년에 7~8회 가량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 여름이나 겨울처럼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계절을 제외하고 봄, 가을에 개최되는 대회는 꼭 참석한다. 처음 동호회가 생겼을 때는 주로 단거리만 도전했던 회원들도 현재는 풀코스(42.195km)에 참여하는 인원만 10명 이상으로 늘었다.

공단 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오래된 동호회인 마라톤회는 그래서

마라톤회 미니 인터뷰



김선택 · 강한 체력을 가진 마라톤회 회장님

일 년에 2번 풀코스에 참가합니다. 지금까지 풀코스만 27회 참가했어요. 처음에는 살을 빼기 위해 가입했는데, 이제는 완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마음만 있다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최경덕 ·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열정 가득한 회원

강원도 영월에서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2000년에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매해 참석해요. 대회를 참여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하고,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탈수가 오기 쉬운데 그것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 즐겁게, 기쁘게 마라톤을 즐기자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어요. 풀코스, 하프, 10km 할 것 없이 기회가 되면 참여를 해서 메달도 많아요. 마라톤은 힘들지만 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본인이 기쁜 마음으로 즐긴다면 참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한다. 이 때문에 회원들 간 친목도모도 잦은 편이다. 지역별로 주말에 모여서 훈련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부천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은 일요일 아침 인천대공원에 모여 같이 훈련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

마라톤이라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마라톤이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이 주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마라톤회에는 노련한 선배들이 많으니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선배들과 같이 훈련 및 대회 참가를 통해 연습방법과 복장 등 정보 습득도 할 수 있다.

내리 췌는 햇빛아래 펼쳐진 마라톤 한마당

5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아침부터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대기석에는 발을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거의 어김없이 참여를 하는 공단 마라톤회의 회원들 역시 오전부터 시작하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장거리를 달리기에 좋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일광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선크림도

꼼꼼하게 발랐다. 운동화 끈을 조인 후, 대회에 앞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 같이 모여 스트레칭도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근육을 유연하게 잘 풀어 준다.

이 날 마라톤 대회는 단거리만 진행되는 코스라 부담이 없었다. 가장 긴 하프(21km), 10km, 5km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마라톤회 회원들은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달리는 날이라며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부분 마라톤을 하고 싶어 참석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는 마라톤에 처음 출전하는 딸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칭한 회원도 있었다.

오전 9시가 가까워 오자 대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으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가장 긴 거리인 하프 코스를 달릴 사람들부터 출발하고, 다음으로 10km, 5km가 차례로 출발하는 순서였다. 가볍게 달릴 수 있을 거라 말하던 마라톤회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대가 서렸다. 끝나면 이어질 즐거운 모임을 생각하며 다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마라톤은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성과와 즐거움이 있다. 체력도 쌓고 친밀함도 높일 수 있는 마라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분명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또 오해영?!

같은 이름 천태만상

연구글러블스(un-Googleables)라는 말이 있다.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경우,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게 된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도 이름이 너무 흔하거나 유명인과 이름이 같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비밀비재하다. 같은 이름으로 벌어진 오해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同名



인재경영처 노사협력팀 김은희

원(은혜 은) 媛(여자 희) 한자 의미대로면 은혜로운 여성입니다. 베풀 줄 아는 여성이 되라는 의미로 지어 주신 이름이에요. 많이들 쓰는 이름이라 대학교 때도 이름이 은희인 동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 내에서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대학교 축제 때 이쪽 저쪽에서 '은희'라는 이름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저인 줄 알고 쳐다 보면 다른 친구를 부르는 거였어요. 민망해서 축제 내내 제 이름이 들려도 모른 척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단 내에도 저보다 선배인 동명이인이 계세요. 신입사원 때 퇴직자분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제 이름을 듣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동명이인 선배로 오해하신 것 같았는데 민망해하실까 봐 아는 척 해 드린 기억도 있어요. 명절 휴가 때 동명이인 선배 이름으로 연가가 올라가서 부랴부랴 취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이름으로 우편물이 와서 열어보니 모르는 회사에서 증명서가 왔더라고요. 동명이인 선배 것도 아니고 주소는 공단 주소가 맞아서 당황하다 알아보니 과학원에도 김은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 보낸 거였어요. 과학관까지 걸어가서 우편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이름이지만 그 때문에 친근감이 가서 좋아요. 나와 같은 김은희를 만날 때마다 그 분들도 친근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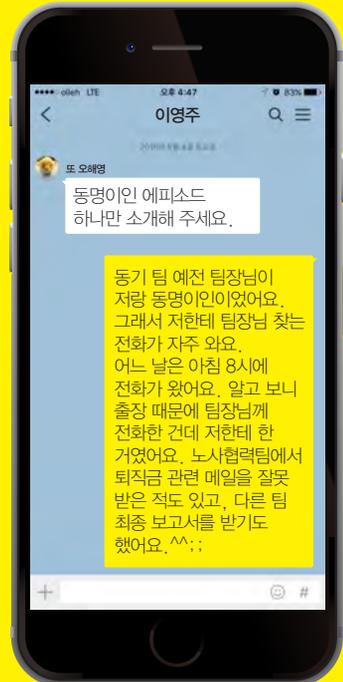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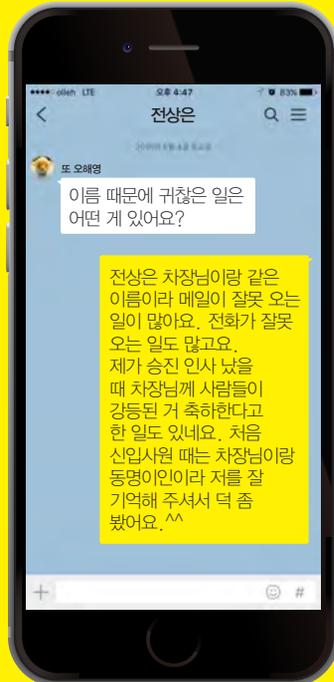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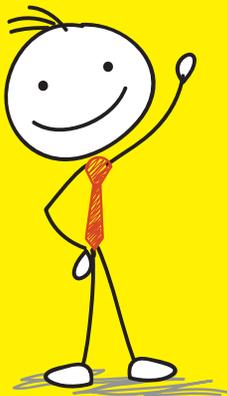
承(이을 승) 範(법 범)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유명한 영화배우와 이름이 같다 보니 카드사나 쇼핑몰 콜센터에서 개인 정보를 물어볼 때 잘 못 알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제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영화배우 류승범 이미지가 성실하지는 못한 양아치 같아서 반듯한 사람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네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유명인과 같은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 저는 제 이름이 좋아서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름이니 행복하게 사시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약취관리센터 약취진단 1팀 류승범



Home is not far away when you are alive

2016년 1월, 케냐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된 나에게 처음
만난 마사이 친구가 말을 건넸다. "Home
is not far away when you are alive."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집은 멀지 않다는 이
말을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향수병에 걸릴까 봐 걱정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다양성을 배우게 된 계기

처음 한국을 떠나 올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하지만 유엔의 나이로비 본부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웠다. 한국의 초가을 같은 선선하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193개의 국기가 펼쳐지는 본부 건물에 들어서면 세계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에 마음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다. 유엔 컴파운드 안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일하는 멋진 사람들이 있었고, 인종과 문화가 다름에도 나와 꼭 맞는 친구들도 금세 사귀었다. 유엔 내 젠더 주류화 정책에 따라 젠더와 환경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보고서 발간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전 세계적인 이슈인 젠더 문제에 대해 배우게 된 점 또한 좋았다. 지금까지는 개발과 환경에만 맞춰 공부했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아름답게 펼쳐진 나이로비의 풍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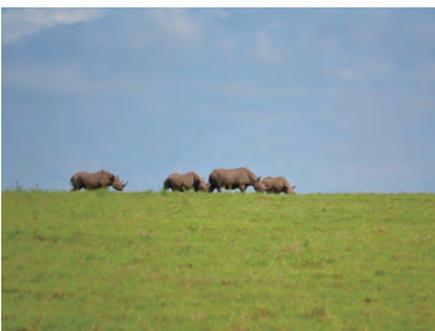
나이로비는 금요일 오후 두 시면 주말이 시작된다. 나 역시 그 시간이 되면 자주 교외로 나갔다. 번잡한 도시 밖에는 끝도 없는 대자연이 펼쳐져 있었고, 나와 친구들은 산, 바다, 숲, 호수, 분화구, 고원, 절벽, 협곡 등을 찾아갔다. 밤에는 쏟아질 것 같은 별들 아래에서 담요 한 장을 깔고 누워 지구가 회전하는 모습을 보았고, 돌과 나무에 걸터 앉아 일출과 일몰을 바라보며 시간의 소중함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꽃과 나무는 색다른 향기를 남겼고, 화려한 색의 아프리카 새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 얼룩말, 기린, 하마, 버팔로, 코뿔소 등 다양한 동물들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지치고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보여 주고 싶은 풍경이었다. 이채롭고 다양한 음식과 신명나는 아프리카 음악, 춤은 나이로비를 즐기는 또 다른 덤이었다.

하루하루가 아까울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문득 내가 진짜 나이로비를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다.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보고 싶어서 케냐까지 왔건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은 국제기구 직원, 대사관 직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외국인이라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사람을 만날 때, 오염되고 안전하지 않은 대중교통을 탈 때, 위험한 밤거리를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좁은 시각으로 이곳을 바라보았다. 그 동안 케냐와 케냐인에 대해 어떤 것대로 평가하고 있었는지, 반년을 살다 가는 내가 잠시 들르는 관광객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이곳은 내가 사는 곳과 다르다고 벽을 치고 있던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나이로비를 알기 위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곳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 보기로 다짐했다. 매일 아침 길에서 마주치고도 지나치던 사람들에게 스와힐리어로 인사를 건넸다. 박물관에서 케냐의 과거에 대해 공부하고, 케냐 대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케냐를 들었다. 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지, 케냐에 산재해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뉴스를 읽었고, 주말에는 고아원을 찾아가 남겨진 아이들과 함께했다. 아파티, 파라타, 우갈리, 야마초마, 사모사, 멘디지 같은 생소한 이름의 케냐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으며 나는 조금씩 케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 마사이 친구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은 케냐를 집처럼 생각하고 지내라는 뜻이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는 곳마다 참되게 머물러 그 곳의 주인이 되어라. 주인이 되면 그 곳은 모두 진리다.’

국제환경전문가가 되기를 꿈꾸며 이 곳에 온 내가 배운 건 특별한 지식이나 다른 외국어가 아니었다. 어느 땅에 발 붙이고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있는 자리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바로 그것이었다.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당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내가 꼽는 공단 제일의 친철남이자 착한 남자 김민규 과장님! 내 기억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2007년 전후 몇 년 차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여전하겠죠? 그 당시 김 과장의 장거리 연애담(혹은 노예담)이 화제였었죠. 주말마다 KTX 타고 부산에 갔지만 데이트 대신 예비차갓집 농장에서 노동력을 헌납 당하곤 했잖아요. 얼마 전 통화 중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호탕한 웃음을 날렸던 김 과장님. 늘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고, 진솔한 언변으로 주변을 유쾌하게 만드는 그 둥글둥글한 품성이 갈수록 화를 못 참고, 독설이 서슴없고, 득 되는 길만 가려하는 나에게는 배움의 대상이자 반성의 동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한편으로 위로도 보내요. 착한 남자라서 거절 장애가 있죠? 그 때문에 떠안은 수많은 결가지 일들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힘내요. 후배님.

보내는 사람 |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처 정보보안관리 T/F팀 김순옥 차장
받는 사람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지원팀 김민규 과장

공단에서 느슨해지면 안 되는 정보보안업무.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데 관련 부서에서 열성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보안관리 T/F팀 김순옥 차장.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불쑥 전화해 어려움을 호소해도 성격만큼이나 가까이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믿음직스러운 그녀. 주변에 대한 헤아림도 깊어 선배나 후배들의 어려움을 읽어 내고 함께 나눌 줄 압니다. 오랜 시간동안 공단의 정보보안을 책임지며 전산정보관리사로서 전문성을 쌓고 본사와 지역 간 소통에 앞장서며 어떤 의견도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김순옥 차장은 우리공단의 보안업무를 철통같이 지키는 참 좋은 직원입니다.

보내는 사람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 나명숙 지사장
받는 사람 |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처 정보보안관리 T/F팀 김순옥 차장



친절한 천대필 차장님^^ 제도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렵기만 했던 법령 해석과 용어들 때문에 자주 전화를 드렸는데요... 귀찮으실 것도 같았지만, 오히려 "그가 그렇게 물어봐주니 고맙다."라고 매번 옆집 형님처럼 살갑게 받아주시는 모습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감사함으로 웃음이 납니다. 소송과 같은 민감한 업무부터 지역본부에서 올라오는 각종 질의 해결로 지칠 법도 한데 후배들의 간지러운 부분까지 물어주시려 챙겨주시는 세심함까지... 제 기억 속에는 슈퍼맨같은 선배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일들만 있으시길 먼곳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는 사람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지원팀 김민규 과장
받는 사람 | 자원순환본부 제도운영처 판매자회수팀 천대필 차장



그래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편한 것이라 느끼는 것이, 같은 처에서 근무해도 환경부 출장을 가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런 생각이 든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두달도 아니고 몇 년의 세월을 환경부에서 일하고 있는 임병서 대리.
이 정도 시간이면 환경부가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은 아니니 편할 리 없는데도 환경부 직원들에게도 인정 받고 항상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반기는 임 대리가 나에게 참 고마운 후배다. 힘들더라도 남은 기간 일 잘하고 일거리 많이 들고 돌아오면 술 한잔 사 줄 생각하고 있을게.

보내는 사람 | 자원순환본부 제도운영처 판매자회수팀 천대필 차장
받는 사람 | 자원순환본부 제도운영처 EPR운영팀 임병서 대리

보내는 사람 | 자원순환본부 제도운영처 EPR운영팀 임병서 대리
받는 사람 | 자원순환촉진센터 자원순환제도지원팀 조석연 차장

일에 대한 열정과 해결 능력, 무엇보다도 후배를 아끼고 배려해 주는 조석연 차장님의 모습을 본 받고 싶습니다. 2010년, 환경부 대행역무사업을 처음 해 보는 저는 모든 일들이 막막하였고, 사업 관련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차장님 담당업무와 관련 없었지만, 주말에 일하는 후배를 위해 조용히 나와 "내가 도와줄 일 없느냐?"며 챙겨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적고 무뎠지만 문제가 생기면 관련 규정이나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신 차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장님께 배운 업무 노하우와 받은 사랑은 제 후배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 바랄게요...





고민 많은 직장인들

살아있는 질문

답변자: 이순모
(주)케이베리 CEO
(전)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전)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회사 업무를 하고 나면 모든 기력이 소진되곤 합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계속 회사에 얽매인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직장 일과 일상 생활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은 언제까지 그저 지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로감은 외부의 것이라기보다 당신 스스로 자초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부탁이나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일의 완성도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당신만의 휴식 시간은 완벽하게 일과 분리된 것이어야 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 쉬었다는 생각보다 쉬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과

타인에게 쏟는 에너지가 필요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자신도 모르게 완벽히 벗어나야 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지요.

“날 좀 내버려 둬!”라고 소리치고 싶지 않나요? 가장 먼저 당신을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회사를 퇴근하는 순간부터 당신 삶의 우선 순위는 당신인 것이 당연하며, 당신이 할 수 있어야 회사에서의 일처리 효율도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회사에 얽매어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을 즐겁게 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자못해 하는 일에 ‘얽매어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을 즐겁게 하고, 일을 하는 당신이 부담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Q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진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한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껏 몇 분에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 왔습니다만, 이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아할 수는 없다’와 ‘미움 받는다’라는 말의 차이 때문이겠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요점은 내 것을 챙기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좋은가와 아닌가, 관계의 어느 한쪽이 미움 받지 않기 위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에게 전혀 마음 쓰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타인의 영역과 감정,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과 다른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미움 받지 않기 위해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당신의 것을 위해 타인에게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움 받을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움 받을 용기가 타인을 무시하는 용기, 과하게 연연하는 용기가 되어선 안 된다는 노파심을 전합니다. 당신은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라인홀드 니버의 명언**을 전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라인홀드 니버, 평온을 비는 기도)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는 환경의 중요성

대구경북지역본부 찾아가는 환경교실

최근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환경오염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지구와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쳐 어릴 때부터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책임을 다하고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기환경교육에 나섰다.



환경 교육에 대한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활동

찾아가는 환경체험교실은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예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다. 당시에는 학교와 일대일 접촉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2013년,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공단에도 미세먼지 관련 환경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를 계기로 공단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청을 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는 환경체험교실은 2015년에는 10건, 2016년에는 6건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편이다.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이는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면역력도 약해 미세먼지와 나쁜 대기로 인한 건강에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교육을 진행했던 학교에 올해 다시 가는 경우도 많다. 3학년 혹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 년이 지나면 지난 해에는 교육을 못 들었던 학생들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 갔던 학교에서 매년 와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교육

햇빛이 맑았던 5월의 어느 날. 찾아가는 환경교실이 대교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고 하여 찾아갔다. 공단의 대구경북지역본부 담당자들은 12시부터 나와 이동식 대기차량을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더 생생한 교육영상을 보여 주기 위해 영상 기기들이 잘 나오는지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이들의 선물도 잊지 않고 챙겼다.

1시가 되자 오늘 수업을 받을 대교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 100여 명이 줄지어 강당으로 입장했다. 담임선생님의 인솔 아래 아이들은 질서정연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이어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정재희 과장이 인사말을 건넨 후, 한국환경공단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동영상이 나왔다. 10세 전후의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에 소란스러워질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은 집중력 있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 영상이 끝나고 정재희 과장이 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맞추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자, 너도나도 손을 들고 정답을 말했다. 영상에 나온 공단 소개글을 그대로 말하는 아이도 있고, 머릿속으로 공단이 하는 일을 빠르게 정리해서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다음은 본격적인 교육시간이 이어졌다. 황사와 오존층에 대한 이야기와 대기가 오염되면서 생길 수 있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 가며 답변을 유도했다. 많은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번쩍 들고 토박토박 답변을 한다. 이 과정에서 뉴튼과 종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아이들이 종력이 있으므로 대기가 있다고 대답해 공단 직원들을 놀라게도 했다. 공기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 공기 없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30초 동안 숨을 멈추었던 아이들은 어지럽고, 힘들고,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하며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경험해 보는 재미있는 체험활동

1시간 정도의 교육과 질문 답변이 끝나고 실제로 경험해 보는 시간이 돌아왔다. 일단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 어린이용 마스크를 쓰는 시범을 진행했다. 체험자로 나온 아이는 물론, 다른 아이들도 마스크를 잘 써야 나쁜 공기가 침범을 못한다는 말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일반적인 마스크와는 다르게 얼굴에 꼭 밀착되는 황사 마스크가 조금 낯설었는지 아이들 사이에서 짧은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그 소리를 신호로 어느 때보다도 소란스러워졌고 곧바로 선생님들이 반별로 아이들을 인솔해서 강당을 빠져나갔다.

강당을 나간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운동장에 놓여 있는 대기오염측정차량. 한 반씩 들어가 대기오염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을 들어보았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임에도 아이들은 처음 보는 장비가 신기한지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
 아이들에게
 공기의 소중한
 알게 하다
 ”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호흡기 건강에 취약한
 초등학생과 부모들에게도 대기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

차량 견학을 마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체험한 건 바로 터치식 대기오염 측정장비로 우리동네 대기오염도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동네 대기질 어플을 시연하는 기계였다. 게임을 하는 것 같았는지 터치스크린을 작동하며 아이들의 호응도는 절정에 달했다. 측정 차량 견학을 마친 다른 반 친구들도 장비를 시험해 보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할 것 없이 터치를 하며 미세먼지 지수를 알려 주는 캐릭터가 뜨면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들은 부모님 휴대 전화에도 우리동네 대기질 어플을 깔아 보겠다고 저마다 얘기를 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선보일 예정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앞으로도 계속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강사, 퀴즈 기념품 제공자, 이동요원, 이동차량 교육자 등 4~5명이 팀을 꾸려 학생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처 내의 다른 팀 지원도 받으면서 팀 간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직원 간의 유대감이 증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특히 호흡기 건강에 취약한 초등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대기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대도시 주변 학교, 산업단지와 같은 오염원 발생 인근 지역의 학교에서는 매년 교육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다.



여름 휴가지 건강생활 도우미

여름에는 더운 도심을 벗어나 산과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뜨거운 햇빛과 상한 음식물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즐거운 휴가를 위협하는 질병과 안전한 여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어플을 소개한다.

햇빛으로 인한 질병들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반사되는 뜨거운 햇빛은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다. 대부분 햇빛에 노출된 부위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가려워진다. 부어 오르거나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질 수 있다.

더운 공기와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우리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일사병이 생길 수 있다. 무력감, 현기증, 심한 두통이 오게 되는데 심하면 의식이 없을 수도 있다. 열사병은 일사병과는 조금 다른데, 온도와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몸이 열을 내보내지 못해서 생긴다. 40도 이상의 고열과 혼수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가장 더운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야외활동을 삼가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을 준비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일광화상이나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면 일단 찬 물에 적신 수건 등을 사용해 몸의 체온을 낮추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 휴가지에서 가까운 병원과 약국 찾기

휴가지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심하게 다쳤다면? 낯선 타지에서 병원과 약국을 찾아서 받을 동동 구르며 헤매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시한 건강정보 어플을 사용해 보자. 실시간으로 내 위치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병원과 약국이 있는지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어플로 응급병원, 야간병원, 문을 연 가장 가까운 약국 정보, 간단한 안전장비약품 판매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안드로이드, IOS 모두 제공하며 스마트폰에서 건강정보를 입력하여 어플을 설치하면 된다.



건강정보 어플을 이용한 병원 찾기



여름철 단골 질병, 식중독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은 각종 미생물에게 최적의 번식 환경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휴가지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식중독은 2~3일 정도의 충분한 휴식과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되지만, 복통과 고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조리하지 말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은 바로 버린다. 야외 활동 시 준비해 간 김밥이나 도시락 등의 보관 온도가 높아지거나 보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섭취 및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휴가철 식중독 예방 요령

휴가지에서 음식을 직접 취할 때는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사용한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은 비누를 사용해 삶아서 뺀다.

이동 중에 온도가 높은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이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는 자제한다. 특히 산이나 들에서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 먹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설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걱정되는 식중독 파악하기

여름철 걱정되는 식중독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기상청이 식중독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 오전, 오후 6시에 2번 제공되며 오전 6시에는 당일과 다음날, 오후 6시에는 다음날과 모레 식중독 지수를 알 수 있다.

식중독 예방 홍보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iOS 2가지로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식중독 예방을 검색 후 어플을 설치하면 된다. 웹사이트(www.mfds.go.kr/f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식중독 예방 홍보 어플 화면

부산에 에코 교육 문화 중심지를 꿈꾸다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사랑홍보교육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교육과 소외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사랑홍보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교육관은 서울, 안성, 의령, 대구, 광주, 전북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번에 부산에도 새롭게 개관을 하게 되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환경체험 공간을 따라가 보았다.





함께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봐요!

35

부산의 교육 문화 중심을 꿈꾸는 솔북이 에듀파크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1층에 위치한 환경사랑홍보 교육관(이하 홍보교육관)은 부산의 교육문화의 중심인 솔북이 에듀파크에 자리잡고 있다. 솔북이 에듀파크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기관인 구포어린이 교통공원(2010년 개관), 대극장 및 소극장을 갖추고 지역 예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2013년 개관), 법(法)을 주제로 한 체험형 테마시설인 부산 솔로몬 로파크(2016년 7월 개관 예정)와 홍보교육관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이름은 지난 2월, 4개 기관 교육시설물의 별칭 공모를 통해 지어졌는데, 솔은 소나무와 솔로몬, 북이는 솔북이 에듀파크가 자리하고 있는 부산 북구의 캐릭터인 거북이를 상징한다. 4개의 교육기관은 모두 나무 데크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곳을 먼저 가도 네 곳의 교육 시설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오픈한지 얼마 안 돼 아직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없지만, 향후에는 기관 간 업무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

공단의 공식 마스코트인 푸루가 반겨 주고 있는 홍보교육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기후대기존, 물환경존, 토양환경존, 자원순환존, 생활환경존 등 주제별로 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보교육관은 지난 5월 24일 개관하였다.

가장 먼저 입구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기후대기존은 거대한 지구본 안에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입체 영화관을 떠올리게 하는 시설 안에 들어가면 기후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동식물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 푸루가 나와서 직접 설명해 준다. 영상뿐만 아니라 바람, 열, 연기를 이용한 특수 효과도 체험할 수 있다.

기후대기존이 끝나면 물환경존이 나온다. 사용한 세면대 물이 어떻게

우리 가정까지 오는지, 버려진 번기의 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순환과정을 LED불빛을 따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유와 식용유, 라면 국물이 버려졌을 때 이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꾸며졌다. 특히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운반하기 위해 끌고 다녀야 하는 물통인 큐드럼을 직접 끌어 붓으로써,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도 했다.

토양환경존에는 내가 버린 캔과 유리병들이 썩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아보는 코너와 땅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가 이어졌다. 자원순환존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재탄생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고, 생활환경존에서는 우리가 내는 찬간 소음이 밀의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찬간 소음의 경우, 아이들이 뛰면 될 수록 그 소음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이 난 아이들이 점점 세계 뛰기도 했다. 우리가 밤에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로등이 얼마나 빛 공해를 유발하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까지 보고 나면 홍보교육관의 전체를 다 둘러보게 된다.

게임으로 즐기는 재미있는 체험들

홍보교육관은 아이들이 더욱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체험 코너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 기후환경존의 거대 지구본 옆에는 어린 아이들이 눈을 갖다 대고 실제로 버튼을 눌러가면서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황사가 무엇인지 등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주머니를 던져 미세먼지를 터뜨려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게임은 아이들이 즐겁게 환경을 알 수 있도록 유도했다. 물환경존의 물 순환 과정도 직접 버튼을 눌러 가며 확인할 수 있고, 땅에서 살고 있는 생물에게 펄프질로 생명을 불어 넣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임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부름에도 멈추지 않을 정도로 좋아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돌아온 숲 속 친구들. 밑그림만 있는 동물 캐릭터를 선택해 본인이 원하는 붓과 펜을 선택해 좋아하는 색깔을 칠하고 '동물친구 자연으로 보내주기'를 누르면 벽에 걸려 있는 프로젝터 화면에 내가 그린 동물이 나타난다. 내가 자연으로 돌려 보낸 동물들이 다른 동물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그린 캐릭터를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을 움직였다.

자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중앙의 놀이터는 버려진 자원을 활용하여 꾸며졌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발을 구르며 뛰고 놀면서 버려진 자원으로 만들어져 다시 태어난 놀이터를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아 본 상식을 활용해 풀어 보는 O.X 퀴즈는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선사한다.

143만 명이 다녀간 체험교육의 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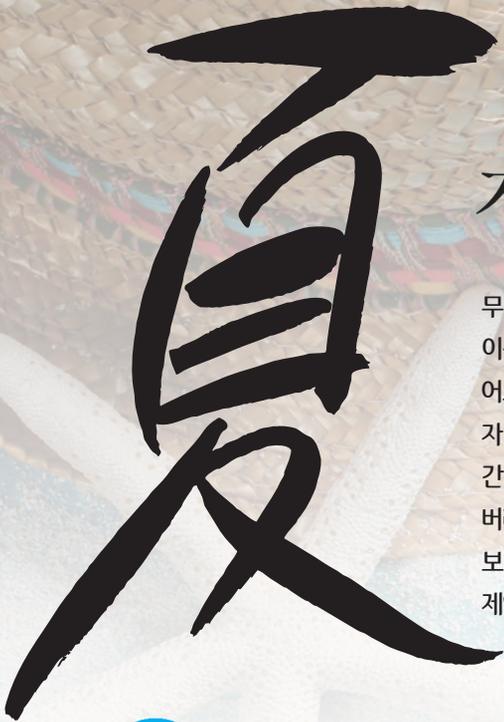
현재 홍보교육관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누적관람객 143만 명을 돌파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참여하는 친환경 작품만들기, 환경 교육 등 환경 프로그램 역시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김해숙 홍보교육관 담당자는 "환경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홍보교육관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들이 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소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장영희 홍보교육관 담당자는 "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차게 꾸몄으니 가족들끼리 시간 내서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홍보교육관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주기를 소망하기도 했다.

이번 여름엔 자연까지 챙겨 보자!

자연과 함께 즐기는 휴가



무더운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도시를 떠나 산과 계곡, 바다와 숲으로 이동합니다. 숲의 그늘과 계곡의 맑은 물, 시원한 바다의 풍경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도 풀리고 더위도 잊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행동이 자연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간편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나무를 꺾는 경우도 있었죠. 2016년 여름 휴가는 자연과 함께 즐겨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와 환경이 같이 웃을 수 있는 1석 2조의 즐거움을 제안합니다.

1

좀 무거우면 어떨까요, 자연을 웃게 해 주세요.

아무리 가볍게 떠나는 것이 좋아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집에 있는 삼푸나 비누 같은 것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필요한 만큼 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 접시 같은 것들도 가능한 1회 용품을 피하는 것이 쓰레기도 줄이고 자연도 보호하는 방법이겠죠? 우리는 매년 우리 몸무게의 6배나 되는 쓰레기를 지구에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생길 수 밖에 없는 쓰레기는 정리에 지정된 구역에 버리고 피서지에서 처치하기 곤란한 쓰레기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까지 챙겨가 주세요. 휴가지에서 쓰는 비닐봉투는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에코백은 비닐봉투보다 튼튼하고 가볍고 예쁘기까지 하답니다.

2

휴가지를 있는 그대로 즐겨보세요.

식사와 간식거리는 그 지역의 것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시장을 방문해 재료를 구입하거나 현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방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음식의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거든요.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때 피서지의 자연도 사랑해 주세요. 산에서 화기를 다루거나 보기 좋다는 이유로 나무를 꺾고, 강이나 계곡에서 빨래를 하는 것은 자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연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고 사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라는 생각을 아이들에게도 심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3

여름 휴가시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사랑 10계명

1. 바다오일을 바르고 바닷물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2. 비닐, 병, 플라스틱 페트병 등 썩지 않는 쓰레기들은 수거해 온다.
3. 계곡 근처에서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 간다.
4. 남은 음식을 계곡물이나 근처 땅에 버리거나 묻지 않는다.
5.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 식기를 사용한다.
6. 캠핑에서 음식을 해 먹을 경우 재료는 집에서 손질해 간다.
7. 설거지거리는 집으로 가져가고 야외에서 해야 할 경우에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다.
8. 캠핑장으로 향할 때는 트렁크에 실린 불필요한 짐을 덜고 경속 주행을 하여 연료 소비를 줄인다.
9. 밤에는 친환경 LED 랜턴 등을 사용하여 빛 공해를 예방한다.
10. 해먹 등 지지대가 필요한 설치물은 나무를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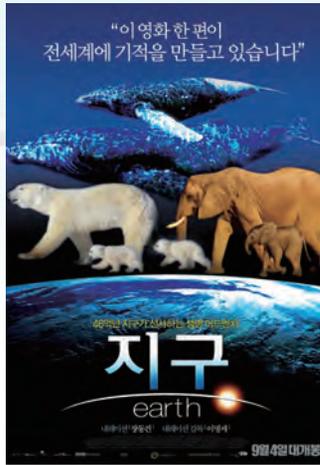
시원한 휴가를 집에서 보내기 위한 환경테마 영화 추천

더운 여름에는 산과 바다, 계곡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미있는 영화, 팝콘, 맥주와 함께 휴가를 즐기기로 마음먹은 당신을 위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번 기회에 재미와 흥미는 물론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북극의 눈물
(Tears in the Arctic, 2009)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MBC 다큐멘터리의 극장판인 이 영화는 현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북극의 삶과 자연을 다룬다. 영화는 폴과 나무 열매로 허기를 달래며 배고픔에 지쳐 잠드는 북극곰과 녹아 버린 빙하의 물웅덩이를 건너다 익사하는 순록, 빠르게 녹는 빙하 때문에 사냥을 포기해야 하는 에스키모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북극의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메시지로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준다.



지구
(Earth, 2007)

환경 다큐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이 영화는 46억년이 된 아름다운 지구를 보여 준다.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없이도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영화를 보면 알게 된다. 이 영화에서는 북극곰과 아프리카 코끼리, 혹등고래가 각각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을 연출 없이 있는 그대로 그려 내며 인간으로 인해 변해 버린 자연의 삭막한 얼굴을 드러낸다. 당신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 반드시 이 영화를 봐야 한다.



불편한 진실
(An Inconvenient Truth, 2006)

지구 역사 65만년 동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던 2005년, 대부분의 빙하 지대가 녹아 내려 심각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왔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환경운동가인 '앨 고어'는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심각한 환경위기를 전 인류에게 알리고자 모든 지식과 정보가 축적된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강연을 시작한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신청사 개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5월 24일 신청사를 개관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신청사는 2010년 1월, 공공기관 선진화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기관 통합에 따라 부산, 김해, 울산에 산재해 있던 청사와 사무 공간을 6년여 만에 통합한 것이다.

전체 예산 185억원을 들여 2012년 부산 북구 구포동 일대 부지 3,290㎡를 매입한 뒤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9,781㎡ 규모의 홍보관 겸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건물을 4년 만에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광역시는 청사 진입로 3개 필지, 약 455㎡에 대해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매입부지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527㎡를 해지, 공단에 매각함으로써 청사 건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신청사 개관 행사에는 부산 북구강서구갑 전재수 국회의원 당선인,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주민대표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부산시 관계자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경지킴이로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손님들의 축하와 인사말이 끝나고, 신청사 앞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와 VIP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였으며, 이후 신청사의 주요 시설을 둘러 보았다.



K e e o n e w s



청소년 환경직업체험관 개관

한국환경공단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성남시에 위치한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 청소년 환경직업체험관을 개관한다. 한국잡월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와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번 체험관은 한국잡월드 내 4층 청소년 체험관 과학기술의 거리에 위치한다.

환경직업체험관은 미래의 환경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실제 환경기술자가 되어 환경과 관련된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소음진동기술자, 수질환경기술자, 토양환경기술자, 대기환경기술자 등 4개 환경 분야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객들은 분야별 실험장비들을 이용해 시료채취, 자료조사, 오염원 정화 등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으며 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값을 입력하여 오염현황, 처리결과, 대책방안 등에 대한 최종보고서도 만들어 볼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직업체험관 개관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환경 교육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약 18,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환경 교육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직업체험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잡월드 회원가입 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시진 이사장은 “그동안 환경교육시설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환경을 직업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환경직업체험관이 최초”라며 “환경일자리가 미래 유망직종으로 각광 받는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와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불법게임기 압수물 자원화

한국환경공단이 2007년부터 벌여온 검·경 합동 ‘불법게임기 압수물 자원화 사업’에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불법게임기 수거·폐기·자원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6년 말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불법게임기가 집중 유통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과 게임위는 내년 이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게임기 수거·폐기로 확보하는 자원화 물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게임기는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 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거부된 게임물이다.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물도 포함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검찰·경찰과 협약을 맺고 단속·압류된 불법게임기를 수거·폐기·자원화하는 ‘압수물 자원화사업’을 펼쳐왔다. 이번 게임위 사업 참여로 보다 많은 양의 불법게임기를 자원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2007년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누계기준 약 199만대의 불법게임기를 인도받아 이중 약 189만대를 자원화하여 1,041억 원에 달하는 매각 수입 성과를 거뒀다. 검·경 등 단속기관에서 인수·보관·폐기 등에 소요되는 약 643억 원의 직간접적인 행정처리 비용도 절감했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게임위 단속 능력과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인프라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존의 형태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방문

이란의 환경부 장관이자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마수메엠테카 (Masoumeh Ebtakar) 부통령이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했다. 이란 방문단은 이란의 매립장 복원 및 매립가스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이란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다.

마수메엠테카 부통령의 방문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과 5월 17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양국의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관리, 습지생태계 보전, 전반적인 환경분야에서 공동 세미나 개최,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이란 방문단과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방문 일정은 먼저 접견실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대회의실로 이동해 한국환경공단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개 시간에는 대한민국 환경 보전을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노력과 성과 등을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 자원화 시스템과 한국환경공단의 해외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어서 이란 테헤란시 매립장 복원 및 매립가스 발전 사업에 대한 소개 시간도 가졌다.

이란 환경부 장관의 방문은 1962년 한국-이란 수교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환경분야로 확대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 e e o n e w s

한국환경공단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 우수등급

한국환경공단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우리동네 대기질 어플을 통해 실시한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 주고, 미세먼지 예보 및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등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온 점을 인정 받은 것이다.

총 1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A등급인 우수, B등급인 보통 상, C등급인 보통 하, D등급인 미흡으로 평가했으며 공기업 I 형 10개, 공기업 II 형 20개, 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18개, 강소형 55개의 유형이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번에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정부 3.0 평가단이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 간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실적, 맞춤형 서비스 추진 실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와 운영 방식을 미흡한 공공기관에도 전파하여 명실공히 국민이 피부로 정부 3.0을 체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3.0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환경 분야 전시회 ENVEX2016 개최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 에너지전 (ENVEX2016)이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8회째인 ENVEX2016은 국내업체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업체가 참가하여 환경산업을 선도해 나갈 신기술과 친환경 제품 등을 전시했다. ENVEX2016은 전시뿐만 아니라 참가기업과 바이어를 이어 주는 매칭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무역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전시회에서 총 50,461명의 관람객과 무역상담액 5,07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ENVEX2016에서는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동시에 진행해 환경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 ENVEX2016에 한국환경공단은 WASCO(물 절약 전문업),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고효율연료제품 품질관리 제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WASCO(Water Saving Company)는 국내 최초의 물 절약 사업으로 물 절약 전문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누수유저감, 절수설비설치 등에 대한 자기자본을 선투자하여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물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ESCO(에너지절약사업)를 모태로 했다.

전시회에는 이밖에도 재활용 가능 물건 온라인 장터인 순환자원 거래소 사업과 폐자원 고효율연료의 건전한 유통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한 고효율연료제품 품질관리 제도 등에 대한 사업설명과 이벤트 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제38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The 38th International Exhibition on Environmental Technology & Green Energy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한국환경공단의 계간 매거진입니다.
 자연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해 주세요.
 재미있게 읽은 기사에 대한 리뷰나, 새로운 코너에 대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진 퍼즐을 맞춰라!

2016년 8월 20일까지 도착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sabo@keco.or.kr로 보내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여름호에 실린 사진입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사진을 순서대로 맞춰 주세요.

- 1. 5-4-6-2-3-1
- 2. 4-3-2-1-2-6
- 3. 1-2-3-4-5-6
- 4. 5-4-3-2-1-6

지난호 엽서 당첨자!

번호 정답 _ 2번(1-6-5-3-2-4)



- | | |
|-----|----------|
| 박남수 | 시흥시 매화로 |
| 김현우 | 부산시 동래구 |
| 김수운 | 대전시 중구 |
| 강상철 | 서울시 서대문구 |
| 조영민 | 의정부시 오목로 |
| 권성현 | 대구시 동구 |
| 전예빈 | 의정부시 회룡로 |
| 김태완 | 서울시 강남구 |
| 김진현 | 양산시 하북면 |
| 장미향 | 마산시 봉암동 |





April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안전팀 **서기영** 사원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통합서비스센터 정선수도사업소 **김우영** 사원 **장남**
 자원순환지원처 영농폐기물관리팀 **신윤호** 사원
 환경에너지처 폐기물시설진단팀 **조규남** 대리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영월수도사업소 **임호윤** 사원 **아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안전팀 **권효은** 사원
 환경인증검사처 자동차인증검사팀 **이상규** 사원 ♥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 **조솔** 사원
 자원순환본부 석면관리처 석면피해구제팀 **서윤택** 팀장 **장녀**
 수생대시설처 수생태정책지원팀 **김한상** 사원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공준용** 대리
 경영지원처 고객동반성장팀 **이새미** 사원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 **김상배** 사원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진단팀 **이호근** 대리

May

환경인증검사처 환경측정기검사팀 **인윤식** 차장 **장남**
강형신 감사 **장녀**
 수도통합서비스센터 사업경영팀 **홍경옥** 사원 **차남**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사업팀 **류재인** 부장 **장녀**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 **배진우** 대리
 환경안전센터 화학물질관리팀 **조병현** 대리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관리팀 **김동욱** 사원

June

기후대기본부 해외측정망T/F팀 **정다이** 사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이슬예** 대리
 제도운영처 EPR운영팀 **장문석** 차장
 환경인증검사처 환경측정기검사팀 **윤정호** 대리 ♥ 환경분석처 유해물질분석팀 **윤다정** 대리

CONGRATULATION



April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팀 **윤명호** 감독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 **손형기** 사원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박성배** 과장
 수도통합서비스센터 정선수도사업소 **우성수** 사원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김정관** 대리

May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윤소희** 사원
 폐자원에너지센터 폐자원품질검사팀 **심재형** 대리
 수질오염방제센터 수질측정망팀 **윤충현** 대리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 **김계현** 사원
 환경안전센터 기술심사팀 **이택중** 대리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이윤진** 대리

June

해위사업처 해위사업팀 **김진성** 대리



May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공사관리2팀 **장성섭** 대리
 수질오염방제센터 수질관제팀 **장상수** 과장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팀 **장진규** 대리
 대기환경처 유해대기관리팀 **원승연** 사원
 배출권관리처 배출량평가팀 **정상목** 대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110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행위 등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homepage : www.acrc.go.k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신규 구독을 원할 경우, 신규 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름 신규 변경

주소



보내는 사람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홍보팀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 담당자 앞

2 2 6 8 9

이번 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또는 아쉬웠던 점과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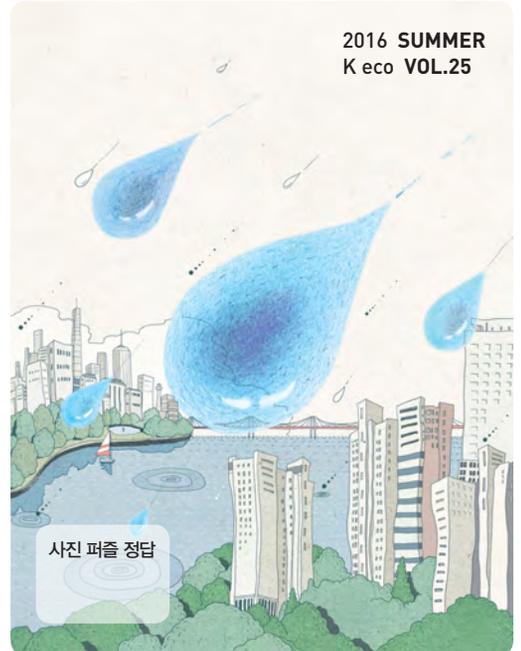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혹은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주세요.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

2016 SUMMER
K eco VOL.25

여러분의 의견은 더욱 알찬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반영하겠습니다.

2016 SUMMER
K eco VOL.25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

개인정보 수집목적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사보 배송
2. 독자엽서 당첨 상품 발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단은 사보 배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항목 : 이름, 주소
2. 선택항목 : 직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탈퇴 및 사보 배송 거부 시까지입니다.

정보 주체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필수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사보 배송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선택항목의 경우에는 해당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원활한 사보 배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사고 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필수항목 : 이름, 주소
 - 선택항목 : 직위
2. 정보의 이용목적 : 사보 배송 및 상품발송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배송거부 및 회원 탈퇴 시까지
4. 위탁업체 : (주)에스아이케이알
5. 거부권 및 불이익 :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필수정보의 경우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사보 배송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선택항목의 경우에는 해당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명)